

# 노년층의 명사 정의하기 특성

김수정<sup>a</sup> · 최현주<sup>b,§</sup>

<sup>a</sup>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sup>b</sup>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노년층에게서 나타나는 언어표현 능력의 저하는 인지 기능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노년층과 청년층의 정의하기 능력의 비교를 통해 노화로 인한 정의하기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고, 노년층에 나타나는 다양한 정의하기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 41명과 청년층 50명을 대상으로 정의하기 과제를 실시하고 정의 점수 및 정의 유형의 출현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노년층의 정의 능력에 대한 성별과 교육정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과제에 사용된 단어는 모두 보통명사로 4개의 범주에서 각 범주별로 고빈도어 3개, 저빈도어 3개를 선정하여 총 24개의 단어를 목표단어로 하였다. 또한 산출한 정의 반응을 점수화하고, 정의 반응을 4개의 정의 유형(기능적 정의, 관계적 정의, 물리적 정의, 분류적 정의)에 따라 분류하였다. **결과:** 첫째, 정의 점수에서 노년층의 수행이 청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둘째, 청년층의 경우 기능적 정의, 물리적 정의, 분류적 정의를 유사한 비율로 사용하고 관계적 정의의 출현율이 낮은 반면, 노년층의 경우 기능적 정의와 관계적 정의의 출현율이 높고 물리적 정의, 분류적 정의의 출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년층의 경우 정의 점수에서 성별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노인층의 경우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정의 점수가 높았으며, 정의 유형의 출현율의 측면에서는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분류적 정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노년이 되면 언어의 의미 처리 능력이 감퇴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상 노년층의 정의하기 능력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치매나 실어증과 같은 노년층에 나타날 수 있는 언어장애의 평가와 중재에 있어 준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107-117.

§ 교신저자

최현주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456번지  
e-mail: hjchoi@kornu.ac.kr  
tel.: 041-570-1677

**핵심어:** 노년층, 정의하기, 정의 점수, 정의 유형

## I. 서론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에 발맞춰 노화(aging)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언어 및 의사소통 기능에도 노화로 인한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박민, 2008; 이미숙 · 김향희, 2011). 그러나 신경학적인 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의 언어장애와 관련된 연구에 비해 정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강수균 외(200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년층이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곤란함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뇌졸중으로 인한 실어증이

나 치매 환자와 정상 노년층의 의사소통 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정상 노년층 역시 의사소통의 곤란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미숙 · 김향희, 2011).

정상 노년층의 의사소통 능력 중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영역은 언어표현 능력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중에서도 단어 정의하기, 품사, 이름대기와 같은 의미론적 측면의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김정완 · 김향희, 2009).

정의하기(definition)란 어떤 단어에 대한 개념의 범위를 한정하여 뚜렷하게 밝혀내는 것으로, 정의한 단어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의미의 내용과, 다른 개념과 구별될 수 있는 특수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전자를 일반성, 후자를 특수성이라고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2-B00454).

한다(Bierwisch & Kiefer, 1970). 정의하기를 위해서는 정의하려는 단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인 상위언어적 능력이 요구된다(Watson, 1985; Wehren, de Lisi & Arnold, 1980). 또한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또 다른 단어들도 머릿속의 어휘 목록에 있어야 하고, 언어적 용법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Watson, 1985).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면 정확한 정의를 할 수 없어, 특정 단어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Johnson & Anglin, 1995). 이렇듯 정의하기 능력의 저하는 부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으로 의사소통에 있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Marinellie & Johnson, 2004).

현재 정의하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김화수 · 유은희 · 정은정, 2006; 박경애 · 김영태, 2000; 이승복 · 이희란, 2007).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정의하기 능력을 단어의 주요 특성과 상위어 포함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질적인 분석을 위해 정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은 정의하기에 있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의 점수와 상위어의 산출이 증가하고(Snow, 1990), 언어 발달지체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정의 점수와 상위어의 산출이 낮았다(박경애 · 김영태, 2000).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의하기에 필요한 주요한 증거들을 점진적으로 습득해 나간다(Watson, 1985; Wehren, de Lisi & Arnold, 1980). 그러나 노년층의 정의하기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되면 인지능력이 점차 감퇴되면서 정의하기 능력 역시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Botwinick & Storandt, 1974; Botwinick, West & Storandt, 1975)와 노인이 되어도 정의하기 능력이 보존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Bowles & Poon, 1985; Fox, 1947; Jean & Nicole, 2011)가 혼재되어 있다. 이렇듯 노년층 정의하기 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노년층의 정의하기 능력과 관련된 연구 중 Hodges et al. (1996)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와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름대기와 정의하기 능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름대기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군과 정상군의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의하기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정의 유형의 산출 빈도가 낮고, 정

확한 정보의 수와 주요한 특성의 수가 더 적게 나타났다. 또한,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성희(2010)의 연구에서는 정의하기 능력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중증도(severity)를 민감히 반영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단어의 의미 처리 능력과 인지능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정상 노년층의 정의하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노년층에 나타나는 언어장애를 진단하고 선별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언어 평가의 하위검사영역에 단어 정의하기를 포함하고 있지만(Huisinigh et al., 2004; Wallace & Hammill, 2002; Wiig & Secord, 1992), 그 비중이 크지 않고 분석 방법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또한, 노년층의 표현언어 능력에서의 의미적인 측면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이름대기 능력의 저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노년층의 정의하기 능력을 파악하고, 성별이나 교육정도의 영향, 정의 유형의 출현율 등 노년층의 정의하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과 청년층 두 집단 간에 나타나는 정의 점수와 정의 유형의 출현율을 비교하여 노화로 인한 정의하기 능력의 변화를 파악하고, 노년층의 성별 및 교육정도에 따른 정의하기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정의 유형별 출현율을 분석하여 노년층의 정의하기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30대의 청년층 50명과 65세 이상의 노년층 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모두 정상 성인으로, 정상 노년층은 (1) 본인이나 보호자의 보고에 의해 신경학적, 정신적 질병에 대한 병력이 없고, (2) 한국판간이정신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강연옥 · 나덕렬 · 한승혜, 1997)에서 24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3) 사전 면담을 통해 과제수행과 지시 따르기를 위한 청력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대상으로 하였다. 집단별 대상자의 평균 연령, 성별 및 교육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1> 집단별 대상자 정보

집단	인원수 (명)	성별		평균 연령 (SD)(세)	평균 교육년수 (SD)(년)
		남	여		
청년층	50	20	30	25.74 (4.48)	15.54 (1.59)
노년층	41	20	21	77.15 (5.69)	4.61 (4.27)
합계	91	40	51		

## 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의미 범주의 특성상 지각적 속성이 주요 특성인 범주(음식, 동물)와 기능적 속성이 주요 특성인 범주(가구, 가전제품)를 사용하였다(Hills & Caramazza, 1991). 4개의 범주 중 각 6개씩 선별하여 총 24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각 범주의 6개 단어는 한국어 사용 빈도(강범모 · 김홍규, 2009)에서 고빈도어 3개(빈도 800이상)와 저빈도어 3개(빈도 30~150)를 선정하였다. 검사 단어들은 <표-2>에 제시하였다.

<표-2> 명사 정의하기 과제의 검사 단어 목록

범 주	검사 단어
음식	빵, 우유, 김치, 송편, 누룽지, 자장면
가구	침대, 의자, 책상, 선반, 싱크대, 책장
동물	소, 토끼, 호랑이, 꿀벌, 악어, 기린
가전제품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 선풍기, 청소기, 정수기

## 3. 연구 절차

### 가. 예비 검사

본 연구에서는 두 번의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 1은 검사 단어의 일반적인 정의 특성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반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단어 정의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 2는 정의 점수의 채점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언어치료학을 전공하고 있는 15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예비검사 1을 통해 수집한 각 검사 단어의 정의 반응을 보여 주고 반응의 내용 중 단어의 주요한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는 2점을, 부수적인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는 1점을, 상관이 없는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는 0점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 나. 본 검사

검사는 소음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연구자와 대상자가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반응은 EDIROL R-09 WAVE/MP3 Recorder를 이용하여 녹음하고 차 후에 녹음자료를 듣고 전사하였다.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에게 지시문을 들려주어 예시와 함께 검사의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검사 단어의 순서를 무작위로 하여 “\_\_\_가 뭐죠?”라고 질문하였다. 혹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_\_\_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라고 질문하여 정의 반응을 촉진하였다(Johnson & Anglin, 1995; Norlin, 1980). 또한 각 피험자의 정의 반응이 너무 길어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개의 발화만 수집하였다.

## 4. 자료 분석

### 가. 정의 점수

정의 반응의 채점기준은 동아새국어사전(두산동아, 2010)의 사전적 정의와 예비검사 2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예비검사 2에서 15명 중 50% 이상의 평가자가 각각 주요한 특성, 부수적인 특성, 상관없음으로 선택한 특성을 선별하였다. 그 중에서 사전적 정의와 중복되는 항목을 중점으로 하여 단어의 특성에 따라 상위 1개 또는 2개를 주요한 특성에 포함하였고 평가자가 50% 이상 0점을 준 내용은 점수기준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의 정의 반응은 모두 부수적 특성에 포함하였다.

각 단어의 정의 점수는 단어의 주요 특성을 설명하고 단어를 범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부여하였다. 상위어의 산출에 1점, 주요 특성은 1개 이상 산출시 1점, 부수적인 특성은 2개 이상 산출시 1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빵’에 대한 정의 반응의 예와 정의 점수를 <표-3>에 제시하였다.

<표-3> ‘빵’에 대한 정의 반응의 예와 정의 점수 채점기준

정의 점수	정의 반응 예
3점	밀가루를(주요한 특성) 반죽해서(부수적 특성) 구워낸(주요한 특성) 음식(상위어)
2점	밀가루를(주요한 특성) 반죽하여(부수적 특성) 구운 것(주요한 특성)
1점	밀가루로 만든 것(주요한 특성)
0점	먹을 수 있고(상관없음) 맛있는 것(상관없음)

## 나. 정의 유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의 유형은 Norlin (1980)과 Wehren, De Lisi & Arnold (1980)에서 제시한 정의 유형을 수정, 보완한 박경애·김영태(2000)의 정의 유형 분류를 따라 기능적 정의, 관계적 정의, 물리적 정의 및 분류적 정의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적 정의: 행위자 기능과 도구적 기능, (2) 관계적 정의: 배경, 위치, 비유/비교, 부정, 관련실체 및 작동원리, (3) 물리적 정의: 부분, 재료 및 속성, (4) 분류적 정의: 하위어와 상위어. 정의 유형에 따른 종류, 특징 및 예는 <부록-1>에 제시하였다.

정의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은 반응은 (1) 정서적 반응(예: 빵-맛있다, 호랑이-무섭다), (2) 다른 단어로 오인한 경우(예: 책상-밥 먹을 때 사용한다), (3)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한 반응(예: 컴퓨터-잘 고장나는 것), (4) 목표 단어와 무관한 설명을 한 경우(예: 의자-잠을 잔다), (5) 연상된 다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예: 자장면-짬뽕은 맵다)이다.

각 정의 유형은 집단별로 출현율을 비교하였으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정의 유형의 출현율} = \frac{\text{각 유형별 정의 유형의 출현빈도}}{\text{정의 유형의 전체 출현빈도}} \times 100$$

## 다. 신뢰도

정의 반응에 대한 정의 점수와 정의 유형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제1평가자는 연구자로, 제2평가자는 학부에서 언어병리학을 수료한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으로 하였다. 신뢰도 평가에 앞서 정의 점수와 정의 유형에 대한 분석 지침을 설명하였다. 신뢰도는 전체 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산출하였다. 평가자 간 일치도는 정의 점수에서 98.77%, 정의 유형에서 98.13%로 나타났다.

## 5.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PASW 18.0을 사용하였다. 청년층과 노년층의 두 집단에 따른 정의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년수를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정의 유형 출현율의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피험자 간-피험자 내 설계에 의한 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정의 유형의 출현율의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년층의 정의 점수에 대한 성별에 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년수를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정의하기 능력에 미치는 교육정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년수와 정의 점수, 정의 유형의 출현율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노년층과 청년층의 정의 점수 차이

노년층과 청년층의 정의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4>에, 공분산분석의 결과를 <표-5>에 제시하였다. 공분산분석 결과 노년층의 정의 점수가 청년층의 정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 = 6.612, p < .05$ ).

<표-4> 집단별 명사 정의하기 과제의 정의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인원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청년층	50	37.22	8.72
노년층	41	22.61	8.43

<표-5> 집단별 명사 정의하기 과제의 정의 점수의 공분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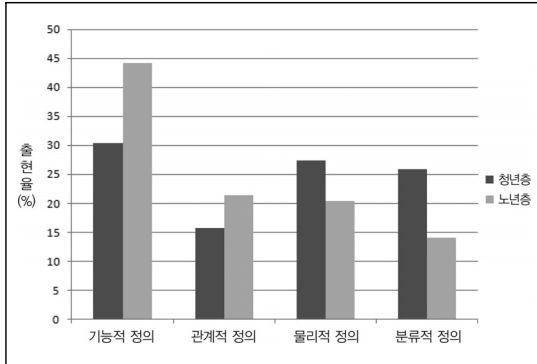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F
교육년수	194.707	1	2.689
집단	478.706	1	6.612*
오차	6371.629	88	

\* $p < .05$

### 2. 노년층과 청년층의 정의 유형 출현율의 차이

노년층과 청년층의 정의 유형 출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그림-1>과 <표-6>에, 분산분석의 결과를 <표-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정의 유형 출현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 = 0.826, p < .05$ ). 또한 집단 내에서 유형에 따른 정의 유형의 출현율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80.471, p < .05$ ). 어떤 유형의 출현율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 결과 기능적 정의와 물리적 정의의 출현율은 그 외의 모든 정의 유형의 출현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관계적 정의와 분류적 정의 사이의 출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 1> 집단에 따른 정의 유형 출현율의 평균

<표 - 6> 집단에 따른 정의 유형 출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의 유형	집단	인원수 (명)	평균 (%)	표준편차 (%)
기능적 정의	청년층	50	30.37	5.35
	노년층	41	44.4	8.89
관계적 정의	청년층	50	15.65	4.19
	노년층	41	21.38	8.06
물리적 정의	청년층	50	27.45	6.96
	노년층	41	20.31	8.57
분류적 정의	청년층	50	25.84	9.24
	노년층	41	14.07	1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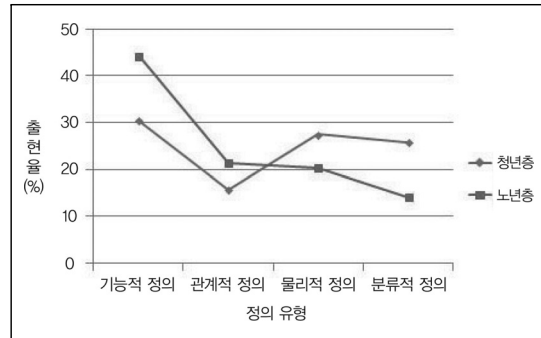
<표 - 7> 정의 유형 출현율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간	283.116	90		
집단	2.605	1	2.605	.826*
오차	280.511	89	3.152	
집단내	51451.458	273		
정의 유형	19943.664	3	8407.731	80.471*
정의 유형*집단	9450.276	3	3983.991	38.131*
오차	22057.518	267	104.482	

\* $p < .05$

정의 유형에 따른 두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는데, 청년층의 경우 관계적 정의에 비해 물리적 정

의와 분류적 정의가 많이 나타난 반면 노년층의 경우 물리적 정의와 분류적 정의에 비해 관계적 정의가 많이 나타났다고(그림 - 2) 참조).



<그림 - 2> 정의 유형에 따른 두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

### 3. 성별에 따른 노년층의 정의 점수의 차이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정의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 8>에, 공분산분석의 결과를 <표 - 9>에 제시하였다. 공분산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정의 점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 = .471, p > .05$ )

<표 - 8>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정의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인원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남성	21	21.19	7.52
여성	20	24.10	9.24

<표 - 9>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정의 점수의 공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F
교육연수	25.826	1	.360
성별	33.774	1	.471
오차	2727.212	38	

### 4. 노년층의 교육연수와 정의 점수 및 정의 유형 출현율의 상관분석

노년층의 정의 점수 및 정의 유형의 출현율과 교육연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 10>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층의 경우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정의 점수가 높았으며, 정의 유형의 출현율에서는 교육연수가 높을

수록 분류적 정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10> 노년층의 교육년수와 정의 점수, 정의 유형 출현율의 pearson상관계수

	정의 점수	기능적 정의	관계적 정의	물리적 정의	분류적 정의
교육 년수	.390*	-.115	-.199	-.247	.405**

\* $p < .05$ ,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과 청년층 두 집단에 나타나는 정의 점수와 정의 유형의 출현율을 비교하여 노화로 인한 정의하기 능력의 변화를 파악하고, 노년층의 성별 및 교육정도에 따른 정의하기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의 유형별 출현율을 분석하여 노년층의 정의하기 특성을 알아보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정의 점수의 경우 교육년수를 통제 한 후에도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년이 되면 정의하기 능력이 감퇴된다는 Botwinick, West & Storandt (1975)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도 정의하기 능력은 보존된다고 주장하는 몇몇 연구들(Bowles & Poon, 1985; Fox, 1947; Jean & Nicole, 2011)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렇듯 기존의 연구에서 노년층의 정의하기 능력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수나 연령, 과제의 난이도 등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정의하기 능력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정의하기 자체를 심도 있게 평가했다기보다는 웨슬러 지능검사(Wechsler, 1955)와 같은 지능검사의 하위 검사를 과제로 사용하였다. 웨슬러 지능검사에서는 정의하기 점수를 0-2점으로 하고 있으나 표현의 정교함이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의미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후반 문항으로 갈수록 지식과 학습경험이 반드시 요구되는 단어가 제시되기 때문에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능검사에서의 정의하기 과제는 대상자의 정의하기 능력에 대해 단편적인 점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점수만으로 실제 노인의 정의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습경험의 영향을 덜 받는 어휘를

사용하였으며, 단어의 특성을 포함한 의미적 특성 및 상위어의 산출 여부, 정의 유형의 출현율을 비교함으로써 정의하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준거 중 하나는 상위어의 산출 여부였다. 노년층의 경우 상위어의 산출빈도가 청년층에 비해 절반 이상 낮게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일반아동이 언어발달지체아동에 비해 상위어의 산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박경애 · 김영태, 2000). 또한 Hodges et al. (1996)의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상위어 산출 빈도가 낮아지고 통제 집단인 정상 노인 집단이 가장 높은 상위어 산출 빈도를 보였다. 상위어의 산출은 사물을 해당 범주로 분류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사물에 대한 의미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Medin & Smith, 1984).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노화로 인한, 의미지식을 포함한 인지능력의 감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의 유형의 출현율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과 정의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기능적 정의의 출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 외의 정의 유형의 출현율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관계적 정의의 출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나머지 기능적 정의, 물리적 정의, 분류적 정의를 유사한 비율로 사용하였고, 노년층의 경우 기능적 정의와 관계적 정의의 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분류적 정의의 사용이 현저하게 제한되었다. 두 집단이 모두 기능적 정의에 높은 출현율을 보였다는 것은 연령에 상관없이 명사 단어를 정의할 때 그 용도와 기능, 움직임 등에 먼저 초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란 것을 시사한다. 이는 정의 유형을 분류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박경애 · 김영태, 2000; 이승복 · 이희란, 2007; 임성희, 2010). 다음으로 청년층은 관계적 정의가 가장 낮은 출현율을 보인 반면, 노년층은 관계적 정의의 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관계적 정의는 목표하는 단어 자체가 아닌 그 배경이나 관련된 사물 등에 의존하여 정의하는 방식인 반면, 물리적 정의는 목표하는 사물의 지각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노년층은 목표 단어의 부수적인 요인에 대해 많은 정보를 산출하고 청년층은 그보다 목표 단어 자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산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류적

정의는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높은 출현율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상위어의 산출 빈도가 청년층이 더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정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고 관계적 정의의 출현율이 높았다는 것은, 노년층이 정의하기에 필요한 핵심을 파악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용한 과제는 다르지만 의미론적 영역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을 비교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양상이다. 청년층과 노년층의 담화능력을 비교한 손은남·강수균(2006)의 연구에서는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이 이야기의 주요 플롯(줄거리)과 주제 관련 내용을 회상하는 능력이 저하되었고 노년층의 경우 핵심 내용에 대해 산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주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층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지은·김진경(2011)은 구어유창성과 과제에서 산출한 어휘가 그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어휘인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어휘의 전형성을 평가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역시 노년층은 어휘의 전형성이 청년층보다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이렇듯 노년이 되면 정의하기, 담화 산출, 이름대기와 같은 언어의 의미론적 영역에서 주요 내용, 즉 핵심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년이 될수록 언어의 의미론적 처리 능력이 감퇴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노년층의 정의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의하기 능력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한 기존의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피험자의 특성, 사용한 어휘 등의 변수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 정도가 노년층의 정의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정의 점수가 높았으며, 정의 유형의 출현율에서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분류적 정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언어능력을 비교한 많은 연구에서 교육정도가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고 있으며(Burke & Shafto, 2007; Neils & Baris, 1995),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의하기 능력 역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수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분류적 정의를 많이 사용한 것은 상위어의 산출과 관련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노년층의 상위어 산출의 제한은 노화로 인한 의미 지식을 포함한 인지능력의 감퇴와 더불어 청년층에 비

해 노년층의 교육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정의하기의 능력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어휘의 전형성이나 의미범주가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한 연구(Astell & Harley, 2002) 결과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주 및 빈도에 따른 단어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전형성과 범주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종단연구를 포함하여 노년층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언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강범모·김홍규(2009). 『한국어 사용빈도』. 서울: 한국문화사.
- 강수균·김동연·석동일·조홍중·최경희(2001). 노인성 질환에 대한 언어 재활 프로그램. 『난청과 언어장애』, 24(2), 51-78.
- 강연옥·나덕렬·한승혜(1997).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K-MMSE의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과학회지』, 15(2), 300-308.
- 김정완·김향희(2009). 노년층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문헌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4, 495-513.
- 김희수·유은희·정은정(2006). ADHD 아동의 연령 및 품사에 따른 단어 정의하기 연구. 『언어치료연구』, 15(4), 165-185.
- 두산동아 편집부(2010).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 박경애·김영태(2000). 언어발달지체아동과 정상아동의 보통 명사 정의하기 능력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5(2), 20-37.
- 박민(2008). 노인의 기억재활: 이론적 개관. 『한국노년학』, 28(4), 925-940.
- 성지은·김진경(2011). 청년층과 노년층 간 생성어름대기에서 나타난 범주별 전형성 비교. 『언어치료연구』, 20(1), 31-50.
- 손은남·강수균(2006). 청년기와 노년기의 이야기 담화 능력 특성 연구. 『언어치료연구』, 15(1), 71-85.
- 이미숙·김향희(2011). 정상 노년층,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언어 산출 특성. 『대한치매학회지』, 10(3), 69-79.
- 이승복·이희란(2007). 단순언어장애아동의 단어 정의하기. 『언어치료연구』, 16(4), 1-18.
- 임성희(2010).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단어 정의하기 능력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tell, A. J., & Harley, T. A. (2002). Accessing semantic knowledge in dementia: Evidence from a word definition task. *Brain and Language*, 82(3), 312-326.
- Bierwisch, M., & Kiefer, F. (1970). Remarks on definitions in natural language. In F. Kiefer (Ed.), *Studies in syntax*

- and semantics. Dordrecht, Netherlands: Reidel.
- Botwinick, J., & Storandt, M. (1974). Vocabulary ability in later lif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5, 303-308.
- Botwinick, J., West, R., & Storandt, M. (1975). Qualitative vocabulary test responses and age. *Journal of Gerontology*, 30, 574-577.
- Bowles, N. L., & Poon, L. W. (1985). Aging and retrieval of words in semantic memory. *Journal of Gerontology*, 40, 71-77.
- Burke, D. M., & Shafto, M. A. (2007). Language and aging. In F. I. M. Craik & T. A. Salthouse (Eds.), *The handbook of aging and cognition* (3rd ed.) (pp. 373-443). London, UK: Psychology Press.
- Fox, C. (1947). Vocabulary ability in later matur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8, 482-492.
- Hodges, J. R., Patterson, K., Graham, N., & Dawson, K. (1996). Naming and knowing in dementia of Alzheimer's type. *Brain and Language*, 54, 302-325.
- Hills, A. E., & Caramazza, A. (1991). Category-specific naming and comprehension impairment: A double dissociation. *Brain*, 114, 2081-2094.
- Huisinigh, R., Bowers, L., LoGiudice, C., & Orman, J. (2004). *The word test-2, elementary*. East Moline, IL: LinguiSystems.
- Jean, G., & Nicole, K. (2011). Word retrieval in ageing: An exploration of the task constraint hypothesis. *Aphasiology*, 25, 774-788.
- Johnson, C. J., & Anglin, J. M. (1995). Qualitative development in the content and form of children's definition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8, 612-629.
- Marinellie, S. A., & Johnson, C. J. (2004). Nouns and verbs: A comparison of definitional style.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33, 217-235.
- Medin, D. L., & Smith, E. E. (1984). Concepts and form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5, 113-138.
- Neils, J., & Baris, J. M. (1995). Effects of age, education, and living environment on Boston Naming Test performanc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8(5), 1143-1149.
- Norlin, P. F. (1980). The development of relational arcs in the lexical semantic memory structure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17, 697-710.
- Snow, C. E. (1990). The development of definitional skill. *Journal of Child Language*, 17, 697-710.
- Wallace, I., & Hammill, D. (2002). *Comprehensiv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2nd ed.). Austin, TX: Pro-Ed.
- Watson, R. (1985). Towards a theory of defini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12, 181-197.
- Wechsler, D. (1955). *Manual for the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revised*. New York, NY: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Wehren, A., de Lisi, R., & Arnold, M. (1980). The development of noun defini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8, 165-175.
- Wiig, E., & Secord, W. (1992). *Test of word knowledge*. San Antonio, TX: Harcourt Assessment.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11)을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부록 - 1> 정의 유형의 종류, 특징 및 예

정의 <sup>a)</sup> 유형	하위 정의 유형	특징	예
기능적 정의	행위자 기능	목표단어의 움직임. 생물뿐만이 아니라 무생물이 행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됨.	토끼: 잘 뜬다. 꿀벌: 꿀을 모은다.
	도구적 기능	목표단어로 할 수 있는 기능.	빵: 먹는다. 라디오: 소리를 듣는다.
관계적 정의	배경	목표단어의 존재나 기능에 선행되는 시간, 조건, 이유. 도구적인 기능이나 속성이 배경처럼 쓰인 경우는 배경 에는 넣지 않고 도구적 기능이나 속성에만 포함시킴.	송편: 추석에 먹는다. 선풍기: 더울 때, 더우니까, 더우면 사용한다.
	위치	목표단어와 관련된 위치.	책상: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용한다.
	비유/ 비교/ 부정	목표단어를 '-처럼, -같이'를 사용해 다른 단어로 비 유하거나 '-보다'를 사용하여 비교함.  '안', '못', '아니다' 등을 사용하여 다른 유형을 부정.	선풍기: 에어컨보다 덜 시원하다. 약어: 도마뱀 같다. 김치: 아이들은 매워서 못 먹는다.
	관련 실체	목표단어와 특히 관련된 사물이나 사람.	책장: 책을 꽂는다.
	작동 원리	목표단어를 작동시키는 원리.	청소기: 전기로 작동한다, 코드를 꽂 는다.
	부분 재료	목표단어의 실물 중 특징적인 부분.  목표단어가 무생물일 때 그의 구성성분	기린: 목이 길다. 송편: 깨가 들어간다.
물리적 정의	속성	목표단어 특유의 여러 가지 속성들.	청소기: 시끄럽다.
	소리		선반: 네모 모양이다.
	모양		침대: 크다.
	크기		약어: 꼬리가 길다.
	길이		책상: 다리가 네 개다.
	양		김치: 빨갈다.
	색		누룽지: 고소하다.
	맛		선풍기: 시원하다.
	온도		소: 힘이 세다.
	세기		송편: 끈적하다.
분류적 정의	하위어	목표단어의 종류.	우유: 초코우유가 있다.
	상위어	목표단어가 속하는 범주.	빵: 음식.

<sup>a)</sup> 출처: 박경애 · 김영태(2000)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Verbal Definitions in Normal Elderly Koreans

Soo-jung Kim<sup>a</sup> · Hyunjoo Choi<sup>b,§</sup>

<sup>a</sup>Graduate School of Rehabilitation Service, Korea Nazarene University, Cheonan, Korea

<sup>b</sup>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Korea Nazarene University, Cheonan, Korea

§ Correspondence to

Prof. Hyunjoo Choi, PhD,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Korea Nazarene  
University,  
456 Ssangyong-dong,  
Cheonan, Korea  
e-mail: hjchoi@kornu.ac.kr  
tel.: + 82 41 570 1677

**Background & Objectives:** Language impairment is an aspect of cognitive impairment that may be related to aging.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verbal definition in normal elderly Koreans and compared their performance with those of younger people. In addition, the study confirmed the effects of gender and educational level on performance of verbal definition. **Methods:** Forty-one normal elderly and 50 younger people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The verbal definitions task included 24 concrete nouns, six words for each of four categories (food, furniture, animal, electrical and appliance). The types of definition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functional, relational, physical and categorical. **Results:** First, the definition score of the normal elderly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younger people group. Second, the appearance ratio of type of definition was found to be in the order of functional, relational, physical, and categorical in normal elderly and in the order of functional, physical, categorical, and relational in younger people. Third, there was no difference in definition score according to gender. Fourth,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educational level, definition score, and the ratio of categorical definition were found.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from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normal elderly Koreans have impairment in verbal definition that is related to cognitive impairment caused by aging.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107-117)

**Key Words:** normal elderly, verbal definition, definition score, type of definition

### REFERENCES

- Astell, A. J., & Harley, T. A. (2002). Accessing semantic knowledge in dementia: Evidence from a word definition task. *Brain and Language*, 82(3), 312-326.
- Bierwisch, M., & Kiefer, F. (1970). Remarks on definitions in natural language. In F. Kiefer (Ed.), *Studies in syntax and semantics*. Dordrecht, Netherlands: Reidel.
- Botwinick, J., & Storandt, M. (1974). Vocabulary ability in later lif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5, 303-308.
- Botwinick, J., West, R., & Storandt, M. (1975). Qualitative vocabulary test responses and age. *Journal of Gerontology*, 30, 574-577.
- Bowles, N. L., & Poon, L. W. (1985). Aging and retrieval of words in semantic memory. *Journal of Gerontology*, 40, 71-77.
- Burke, D. M., & Shafto, M. A. (2007). Language and aging. In F. I. M. Craik & T. A. Salthouse (Eds.), *The handbook of aging and cognition* (3rd ed.) (pp. 373-443). London, UK: Psychology Press.
- Doosan Dong-A Editorial (2010). *Dong-A Korean language dictionary*. Seoul: Doosan Dong-A.
- Fox, C. (1947). Vocabulary ability in later matur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8, 482-492.
- Hills, A. E., & Caramazza, A. (1991). Category-specific naming and comprehension impairment: A double dissociation. *Brain*, 114, 2081-2094.
- Hodges, J. R., Patterson, K., Graham, N., & Dawson, K. (1996). Naming and knowing in dementia of Alzheimer's type. *Brain and Language*, 54, 302-325.
- Huisinigh, R., Bowers, L., LoGiudice, C., & Orman, J. (2004). *The word test-2, elementary*. East Moline, IL: LinguiSystems.
- Jean, G., & Nicole, K. (2011). Word retrieval in ageing: An exploration of the task constraint hypothesis. *Aphasiology*, 25, 774-788.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1-332-B00454).

■ Received January 18, 2012 ■ Final revision received February 29, 2012 ■ Accepted March 3, 2012.

© 2012 The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http://www.kasa1986.or.kr>

- Johnson, C. J., & Anglin, J. M. (1995). Qualitative development in the content and form of children's definition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8*, 612-629.
- Kang, B., & Kim, H. (2009). *Frequency of Korean*. Seoul: Hankookmunhwasa.
- Kang, S., Kim, D., Seock, D., Joh, H., & Choi, K. (2001). Language rehabilitation program of the aged disease. *Communication Disorder, 24*(2), 51-78.
- Kang, Y., Na, D., & Han, S. (1997). A validity study on th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in dementia patients. *Journal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15*(2), 300-308.
- Kim, H., Yu, E., & Jung, E. (2006). Study of word definition by age and word class in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Speech-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15*(4), 165-185.
- Kim, J., & Kim, H. (2009). Communicative ability in normal aging: A review.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4*, 495-513.
- Lee, M. S., & Kim, H. (2011). Characteristics of expressive language in normal aging,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Alzheimer's disease. *Dementia and Neurocognitive Disorders, 10*(3), 69-79.
- Lee, S., & Lee, H. (2007). Definitional category analysis of ambiguous words in Korea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16*(4), 1-18.
- Lim, S. H. (2010). *Changes in word definition ability depending on severity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Marinellie, S. A., & Johnson, C. J. (2004). Nouns and verbs: A comparison of definitional style.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33*, 217-235.
- Medin, D. L., & Smith, E. E. (1984). Concepts and form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5*, 113-138.
- Neils, J., & Baris, J. M. (1995). Effects of age, education, and living environment on Boston Naming Test performanc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8*(5), 1143-1149.
- Norlin, P. F. (1980). The development of relational arcs in the lexical semantic memory structure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17*, 697-710.
- Park, K., & Kim, Y. (2000). A comparative study of verbal definitions of concrete nouns between normal children and language delay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5*(2), 20-37.
- Park, M. (2008). Memory rehabilitation in the elderly: A theoretical review.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4), 925-940.
- Snow, C. E. (1990). The development of definitional skill. *Journal of Child Language, 17*, 697-710.
- Sohn, E., & Kang, S. (2006). A study on story retelling in the adults. *Journal of Speech-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15*(1), 71-85.
- Sung, J., & Kim, J. (2011). Differential performance on generative naming and typicality rating between young and older adults. *Journal of Speech-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20*(1), 31-50.
- Wallace, I., & Hammill, D. (2002). *Comprehensiv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2nd ed.). Austin, TX: Pro-Ed.
- Watson, R. (1985). Towards a theory of defini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12*, 181-197.
- Wechsler, D. (1955). *Manual for the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revised*. New York, NY: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Wehren, A., de Lisi, R., & Arnold, M. (1980). The development of noun defini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8*, 165-175.
- Wiig, E., & Secord, W. (1992). *Test of word knowledge*. San Antonio, TX: Harcourt Assessment.

\* This paper was reconstituted on a base of the master's thesis of the first author with a supplementary explanation(2011).

# 12~24개월 구개열 유아와 일반 유아의 음운발달

문희원<sup>a</sup> · 하승희<sup>a,b,§</sup>

<sup>a</sup>한림대학교 대학원 언어청각학과, <sup>b</sup>청각언어연구소

**배경 및 목적:** 구개열 아동들은 선천적인 구강 구조의 결함으로 인해 발달 초기부터 일반 아동들과는 다른 말-언어 발달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운영역에서의 두드러진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실제 발화 자료에 기초하여 구개열 유아들의 음운발달을 자세히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발화 샘플을 바탕으로 일반 유아들과 비교하여 구개열 유아들의 초기 음운 발달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법:** 생후 12~24개월의 구개열 유아 14명과 일반 유아 14명으로 총 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자가 각 유아의 가정에 방문하여 주양육자와 검사자와의 자유놀이를 유도하여 실제 발화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두 집단의 총 발화수, 음절 구조 유형, 자음목록수, 조음 위치 및 방법별 자음 산출빈도와 산출율을 분석하여 음운발달을 살펴보았다. **결과:** 첫째, 총 발화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구개열 유아들이 더 적은 발화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일반 유아와 비교하여 구개열 유아들이 CV형과 CVC형을 유의미하게 적게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음목록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반 유아들이 평균 6~7개의 자음을 사용하는 반면, 구개열 유아들은 평균 2~3개의 자음을 사용하며 제한된 자음목록을 보였다. 넷째, 구개열 유아들은 조음 위치측면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치조음, 경구개음 산출율과 높은 성문음 산출율을 보이며, 후방음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음 방법측면에서는 유의미하게 낮은 파열음, 파찰음 산출율과 높은 성문마찰음 산출율을 보였다. 또한 발성유형 측면에서는 평음과 경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연구결과는 구개열 유아들은 일반 유아에 비해 단순한 음절구조를 선호하고 비음과 성문마찰음만을 포함한 제한된 자음목록수를 보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2~24개월 구개열 유아들의 실제 발화 자료를 통해 초기 음운발달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구개열 유아들의 초기 평가와 음운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118-129.

**핵심어:** 구개열 유아, 음운발달, 자음목록, 선호자질

§ 교신저자

하승희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교수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길  
39번지  
e-mail: shha@hallym.ac.kr  
tel.: 033-248-2215

## I. 서론

유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구강 구조의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발달 초기에 입술, 치아, 혀 등의 구강 기관을 사용하여 다양한 소리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다(김사현, 1990). 일반적으로 조음 위치 변별은 다른 자질(조음 방법, 발성 유형)의 변별보다 먼저 이루어진다(안미리 · 김태경, 2003). 연령 별 습득시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12개월에는 대부분 양순음과 치조음이 산출되고, 18개월 경에는 연구개

음이 산출되기 시작한다. 즉, 조음 위치에 따른 변별은 구강 앞쪽 소리부터 산출되기 시작하여 점차 구강 뒤쪽 소리로 발달하게 된다. 조음 방법 측면에서는 12개월에 비음과 파열음이 산출되고, 18개월에는 경음이 출현되기 시작한다. 마찰음과 유음의 산출은 비교적 늦은 편으로, 24개월이 되면 일부 파찰음과 마찰음, 유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산출된다(정경희 · 배소영 · 김기숙, 2006; 홍경훈 · 심현섭, 2002; Zmarich & Bonifacio, 2005).

구개열 유아들은 발달 초기부터 선천적인 구강 기관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109-050)에 의하여 연구되었음.